

교육연합신문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교육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하길...

이명박 정부의 특권적 교육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교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현장에서 교육 정론의 길을 열어갈 교육연합신문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렵지만 합니다. OECD국가 평균에도 못미치는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부모들의 등골이 휘는 사교육비는 OECD평균 7배를 지출하는 대한민국에서 정부는 교육발전의 근간이 되어온 교육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평균대비 과밀학급이 많은 현실에서 교원확충을 동결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김진표(민주당)

교육은 미래세대에 대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입니다. 획일화된 교육, 줄세우기식의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연합신문은 학생중심, 교사중심, 학부모 중심의 유익한 교육전문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민주당의 지도부로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세 폐지를 막고 GDP대비 정부지출 6%의 교육재정 확보로 공교육 혁신을 이루고 부모와 학생이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현장에 힘이 되는 언론, 학부모에게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언론, 학생들에게는 소중한 정보제공의 언론으로 언제나 정론의 초심을 잊지 않고 변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냉철한 시각으로 문제점 지적하는 신문

만물이 번성하는 신록의 5월에 교육정론지 '교육연합신문'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동안 창간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일부 전문가들은 발행인과 몇몇 기자들이 제작해 발행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 냉철한 시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신문 만큼은 교육전문가들에 의해서 발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계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교육정론지 '교육연합신문'의 창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국회의원 최재성(민주당)

인류를 통틀어 최고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은 올바른 교육

정책을 통해야만 성장하고 발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정책의 성패가 대한민국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연합신문'이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바른 언론으로 발전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또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서 항상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교육연합신문"이 발전하는 모습을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간을 축하드리며, 교육연합신문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안목과 폭넓은 사고로 접근하길...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춘진입니다. 먼저 '교육연합신문'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첫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의 용기와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교육은 '百年之大計'라고 합니다.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세계 일류 지식정보강국의 실현도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세계적 경쟁의 시대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적극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연합신문'은 교육계의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삼아 참신한 정책적 대안을 통해 우리 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믿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격과 지식을 모두 걸고 평생토록 사명감과 책임으로 교육의 길을 실천해 오신 모든 교육관계자분께 마음으로부터 찬사를 보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참 교육관으로 일관하면서 교육입국의 중요성을 강



국회의원 김춘진(민주당)

조하고 현장 교육을 통해 이 나라 교육을 밝혀주는 햇살의 역할로써 우리 교육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언론은 긴 안목과 폭넓은 사고로 날카로운 비판과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과 나라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언론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자 시대정신을 만들어 나가는 주요한 힘입니다.

또한 교육계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으로 교육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교육연합신문'은 공정한 보

도, 열린 비판의식과 문제제기,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등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독자들의 큰 반향을 일으키며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 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향제시와 심층보도, 정확하고 냉철한 분석을 제공하여 교육정책이 나아갈 길을 밝혀 주어야 합니다.

'교육연합신문'이 정의롭고 따뜻한 대한민국 사회,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교육을 이룩하는데 선구자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교육연합신문'이 독자들의 끊임 없는 사랑과 함께 희망과 미래를 열어주는 언론사로 성장해 나가는 신문사가 되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교육연합신문'의 발전은 관계자 일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문의 발전이 튼튼한 '대한민국 교육'의 초석이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이라 여기시고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연합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연합신문 창간을 축하드리며...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안민석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육의 의미는 무엇인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지금입니다. 사교육비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경쟁위주 교육이 강화되면서 사교육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교실에서 떠밀리난 아이들과 학원에 아이들을 빼앗긴 선생님들의 쓸쓸한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르치고 배우는 즐거움,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걸맞는 창



국회의원 안민석(민주당)

의적인 인재, 저출산시대에 대비한 학생들 저마다의 다양한 잠재능력의 육성이 시급합니다.

지금과 같은 '혼돈의 교육'에서 교육연합신문의 창간은 우리가 품답고,

자부하는 교육계의 진솔한 성찰의 장이 되어 '창조의 교육'으로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교육연합신문의 또 다른 역할은 우리 교육환경의 튼튼한 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튼튼한 뿌리의 기반은 교육 전문가의 폭 넓은 식견과 토론의 마당으로 가능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복잡한 갈등을 조정하고, 결국 합리적인 대안으로 열매맺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교육연합신문을 통해 가슴을 터놓고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희망찬 소식과 날카로운 비판으로 지면을 두루 채워 좋은 신문으로 성장하시길 기원합니다.

창간 축하를 보내주신 국회의원 및 교육감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 드립니다.

2009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계절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순수학위취득자 5학기 조기졸업제 시행

1. 모집과정 : 석사학위 과정(교육학 석사)

2. 원서접수

가. 특별전형 : 2009년 5월 25일(월) ~ 2009년 5월 28일(목) 09:00 ~ 17:30

나. 일반전형 : 2009년 6월 22일(월) ~ 2009년 6월 26일(금) 09:00 ~ 17:30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4. 전형일시 및 장소

가. 특별전형 : 2009년 6월 13일(토)

나. 일반전형 : 2009년 7월 11일(토)

5. 특전

◆ 현직교원, 장학사(관), 연구사(관) : 등록금의 40% 특별장학금 지급

◆ 교원자격증(2급정교사이상) 소지자 : 등록금의 20%를 특별장학금 지급

◆ 성적우수자에게는 일반장학금을 지급

◆ 임용고시에 합격 한 경우 최고 100%까지 1학기동안 장학금 지급.(1차 합격자부터 지급)

◆ 교육실습 우수자에게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

◆ 임용고시 대비 무료 특강 및 인터넷강의 연중 실시

◆ 출석수업 기간 본교 기숙사 이용 가능

문의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학팀 (062) 230-6421, 6422